

민속  
문화



## 신록을 수놓은 단오(端午) 민속

강 육  
자유기고가

음력 5월 5일(양력으로 6월 8일) 단오(端午)는 연중 4대 명절(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하나로 천중절, 수릿, 중오절, 단양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리어진다. 예로부터 3월 3일, 5월 5일, 6월 6일, 7월 7일, 9월 9일 등 월과 일이 겹치는 날은 양기(陽氣)가 가득찬 길일(吉日)로 쳐왔는데, 특히 5월 5일 단오는 일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갖가지 행사를 치렀다.

단오는 절기로는 대체로 하지(夏至) 전에 들기 때문에 일년 중 가장 따뜻한 철로 푸른 신록이 짙어갈 때이다. 오월의 대표적인 민속인 단오날에 농경사회에서는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날을 ‘수리’, 수레 또는 ‘수릿날’이라 하여 각 가정에서는 수리치떡이나 쑥떡을 해 먹는다. 수리란 고상신(高上神)을 의미하며 최고를 뜻하기도 하고, 쑥떡의 모양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때쯤 농경사회에서 파종을 하고 모를 낸 후 약간의 휴식이 준비되는 시기가 단오절로, 이날 하루 내내 마음껏 놀이를 즐긴다. 추위가 늦게까지 계속되는 북쪽지방은 이때 비로소 날이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 남쪽이 추석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북쪽에서는 단오를 더 중시했음은 지역의 기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오날에 제일 애용되는 것으로 창포(菖蒲)가 있다. 속칭 장포라고 하는데 특별한 향기가 있고, 그 뿌리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옆으로 뻗어 있는데, 굵기는 큰 것은 방망이만한 것도 있다. 창포는 빛깔이 붉은 빛에 가까운 갈색으로 수염뿌리가 많이 모여 실처럼 뻗어 있다. 한의에서는 창포를 약재로 쓰고 있다.

이날 창포를 캐어다가 물에 넣고 삶아서 그 물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았다. 머리 곁이 윤이 나고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하여 부녀자 뿐 아니라 남자들도 모두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다. 또한 여자들은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를 만들고 양 끝에 연지로 붉게 칠하고 ‘수복(壽福)’이란 글자를 새기어 머리에 꽂기도 하였다. 창포의 독특한 향기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며 붉은 색 연지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왕가나 상류사회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창포로 술을 빚어 약주로 쓰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이 창포주이다. 조선조 인조 17년 5월 단오일의 기록에 “단오날에 내자사에서 전례에 의하여 창포주를 진상하고 육조에서는 물선(物膳)을 진상하려고 하였더니 임금의 가뭇이 매우 심한데 이런 사치스러운 술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거절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단오날에 창포주를 복용하던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옷날에 왕이 대신들에게 나누어주는 부채를 단오선(端午扇)이라고 한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단오에 공조(工曹)에서는 부채를 만들어 바친다고 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사와 통제사는 부채를 진상하고 조정에서는 벼슬아치와 각 고을의 수령에게 부채를 선사하였다. 단오절은 더운 철로 접어드는 계절이므로 긴요하게 쓰일 것을 예상하여 선사품으로 널리 애용되었다. 동지 때의 책력과 단오절의 부채는 임금이 절기 따라 하사하는 것 중에서도 손꼽히는 것들이었다.

부채의 용도는 실로 다양하다.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쫓을 뿐만 아니라 햇빛을 가릴 때, 모기나 파리를 쫓을 때, 혼례식 때와 무당이 굿을 할 때, 무희가 춤을 출 때, 창(唱)을 부를 때, 또는 대신이 출행할 때에 하인이 들고 대신의 머리 위를 가리는 의식에도 사용한다. 또한 부채의 색깔도 다양했다.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등이 있으나 청색은 신랑이 홍색은 신부가 백색은 상제가 사용했다고 한다. 부채는 전주 남평(南平)에서 만든 것이 일품이었다. 특히 합죽선(合竹扇)은 전주의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단옷날이면 익모초나 쑥을 뜯어 말려 두었다가 약으로 사용하는 풍속이 있다. 익모초와 쑥은 한약제로도 사용하지만 특히 단오에 뜯은 익모초와 쑥은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모초(益母草)는 이름 그대로 산모의 몸에 이롭고, 여름에 익모초 즙을 마시면 식욕을 돋우어 준다고 하여 누구나 흔히 사용했다.

또한 단옷날에는 양기가 가장 왕성하여 나쁜 악귀를 쫓는다고 해서 부적을 만들어 문설주에 붙였는데 이를 천중부적, 또는 단오부(端午符)라고 했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주사(朱砂)로 천중부적(天中符籙)을 찍어서 대궐안의 임금께 바치면 임금이 이것을 각 대궐에 나누어 주어 문설주에 붙였다고 한다. 재앙을 미리 막아서 물리친다는 민간 신앙의 한 형식인 부적은 단오의 연례 행사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곳곳에 널리 퍼졌다.

단옷날에는 그네뛰기, 씨름, 탈춤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흥겹게 펼쳐졌다. 오늘날에도 단

오 때가 되면 해서(海西) 지방에서는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등 탈놀이를 하기도 하며, 강릉지방에서는 남대천의 넓은 공터에서 단오굿판을 벌이기도 한다.

단오날은 여성에게 가장 인상 깊은 명절의 하나이다. 이 날의 놀이로 그네뛰기를 첫 손가락에 꼽는다. 그네는 크게 자란 고목나무의 옆가지에 매어 늘어뜨리거나 굽고 단단하게 끈 동아줄이나 밧줄을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워 그 위에 줄을 매고 그네를 뿜다. 녹음이 짙은 오월의 나무아래서 울긋불긋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녀자들이 치마폭을 바람결에 날리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다.

밑신개에 올라서서 발에 힘을 주어 구르면 앞뒤로 까맣게 쏜다. 혼자 뛰면 외그네요, 둘이 뛰면 쌍그네다. 곱게 단장한 동네 처녀가 치맛자락 한들한들 나뭇기며 새하얀 속옷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광경은 정말 선녀가 공중에서 춤을 추는 듯하여 젊은 남자나 총각들의 애를 태우기도 하였다. 지난날에 바깥출입이 거의 없던 부녀자들로서는 널뛰기와 그네뛰기가 오직 여자에게 주어질 좋은 운동이었으며, 서로 모여 즐겁게 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네뛰기는 남쪽보다는 북쪽으로 갈수록 성행하며 설날 널뛰기와 함께 여자들의 놀이로 쌍벽을 이룬다. 지금도 단오날이면 전국 곳곳에서 그네를 가설해 놓고 그네뛰기 대회를 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 씨름을 고려기(高麗技)라고 하는데 가장 남성적이고 서민적인 민중 오락이라 할 수 있다. 단오날 백사장 같은 곳에 씨름 터를 마련하고 남자들 둘이 서로 맞붙어 이기고 짐을 겨루는데, 그 하는 방법이나 재간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재간에는 ‘손재간’, ‘다리재간’, 그리고 ‘허리재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손재간은 상대방의 손을 사용하여 당기고 밀고 팔로 감아 넘어뜨리는 재간을 말한다.

씨름 등급도 가지가지여서 제일 먼저 열대여섯 살의 아이들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을 ‘아기씨름’이라 한다. 다음에는 ‘총각마구리’라 하여 총각들이 나와서 재주를 겨룬다. 맨 나중에는 ‘소걸이’라 하여 씨름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소를 상으로 준다. 이 소걸이 씨름은 장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큰 장정들이 나와서 서로 맞붙잡고 재간과 기술을 겨룬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다. 들어오는 대로 넘어뜨려서 나중엔 나와서 겨루는 사람이 없어야 이기는 것이다. 맨 나중엔 이긴 사람은 상으로 탄 소에 타거나 소를 끌고 씨름판을 누비며 기세를 올린다. 🐮

